

유튜브[임마누엘교회 울현동], 카카오톡 채널[임마누엘교회]

1 처음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새가족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지하 1층 새가족실에서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공동식사
성도간에 기쁨의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섬김/추유순 권사 봉사/4여선교회 설거지/남선교회

3 담임목사
5.27(월) ~ 29(수) 예수동행 형제교회 부부수련회

새가족 환영

God bless you

SINCE1982.4.11

제24-21
2024.05.26

www.immch.or.kr

임마누엘교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새가족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지하 1층 새가족실에서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교회 새가족국

02.3411.1918
010.3880.7209
변희주 권사

예배 안내

주일예배	주일	오전 9시 11시	본당
다음세대	주일	오전 11시	교육관
청소년	주일	오전 9시	교육관
청년부	주일	오후 1시	교육관
매일아침예배	월-금	오전 5시30분	본당
수요일예배		오전 10시30분	본당
금요말씀기도회		오후 8시	본당
속회예배	목-토		

오시는 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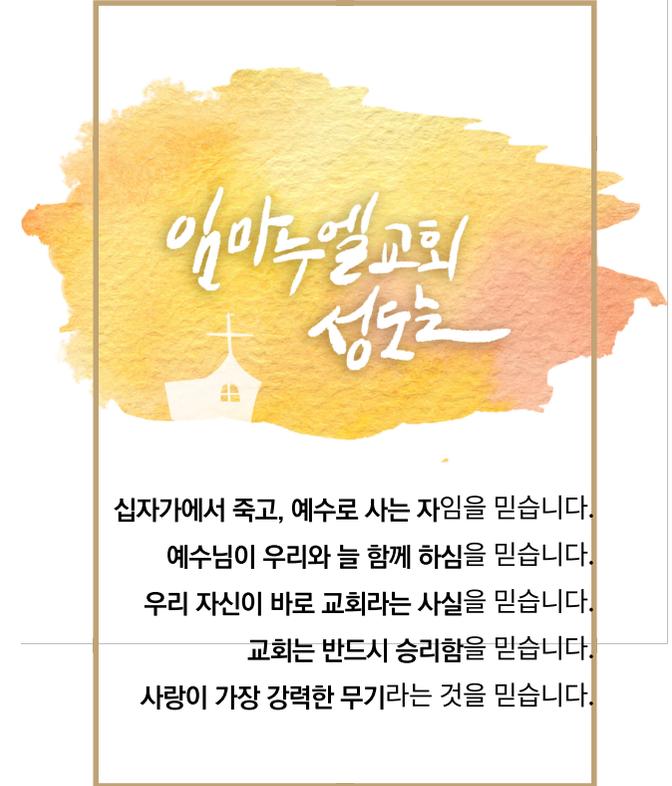


섬기는 교회 | 선교사

해외 강남진 임명호선교사 잠비아
이준 위문선교사 태국
류승현 황윤주 선교사 르완다

국내 기동교회 안민혁목사
영파교회 고병선목사
익산벨렐교회 마준철목사
극동방송
위드지저스미니스트리
행복한선교회
건국대학교병원 교회 정명희 목사
서울삼성병원 교회 김정숙 목사

담임목사 김영광
부목사 김경현 유한나
전도사 염민아
원로목사 임규호
원로장로 김현식 박양수
시무장로 전병희 마승초 주진범 주창호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로 사는 자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자신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교회는 반드시 승리함을 믿습니다.
사랑이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것을 믿습니다.



06378 서울시 강남구 밤고개로 23길 7
T 02.3411.1918

기독교대한감리회
임마누엘교회

담임목사 김영광

주 일 예 배

1부 오전 9:00 | 2부 오전 11:00

경배와찬양	다함께
*찬양	나를 통하여
*예배로의부름	김영광 목사
*신앙고백	다함께
대표기도	1부 노복임 권사 2부 주진범 장로
성경	사도행전 9:26-31(새번역) 사회자
찬양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임마누엘찬양대
설교	좋은 사람, 나쁜 사람 김영광 목사
*봉헌과결단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축도	김영광 목사

*표는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주일 대표 기도

6/2 1부 박현희 권사
2부 주창호 장로

6/9 1부 박형근 권사
2부 전병희 장로

매일아침예배

월-금 오전 5:30

주중모임

[수요일예배] 오전 10:30

[전도]

수요전도대 오후 1:00

열왕기상

김영광 목사
김경현 목사
유한나 목사

교회, 나의 기도원

화 ~ 토 오전 9시-오후 6시

성전기도시간 본당에서 언제든지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가 정 예 배

말씀으로 살아가는 가정

주일 저녁에는 가정에서 가족이 함께 예배합니다.
온 세대 주일사도행전 말씀으로 나눔의 시간을 갖습니다.

가정예배 이렇게 드립니다

- 1)찬양으로 예배 시작(QR코드)
- 2)성령의 조명을 위한 시작기도
- 3)가족이 함께 소리내어 말씀읽기
- 4)인도자의 말씀 선포 후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한 명씩 나누고 기도
- 5)마침기도

찬양_총만(나는 예수로 총만하네)



말씀_사도행전 9:26-31

사울이 예수님을 믿고 완전히 변화되고,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울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고, 유대교 유대인들은 변한 사울을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이 사실을 알게된 사람들은 사울이 도망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사울은 다메섹에서 탈출하여 예루살렘을 방문합니다.(26절) 말씀에는 사울이 다메섹에서 도망쳐 바로 예루살렘에 간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약 3년간 아라비아 광야에서 시간을 보낸 후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갈1:17)

3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아직 사울에 대한 두려움이 컸습니다. 이에 위로의 아들 바나바는 기꺼이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 앞에 섰습니다.(27절) 사울을 두려워 하는 사도들 앞에서, 바나바는 사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에 대하여 대변하고 간증해주었습니다.

사울을 대변하는 일은 바나바에게도 많은 위험과 갈등을 감수해야 하는 부담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사도들과 성도들 중에는 사울 때문에 소중한 사람을 잃기도 했을 것이고, 사울이 진짜 변화되었는지에 대하여 확인할 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그런 모든 부담과 위험을 감수하고 사울을 받아주었습니다. 사람들이 사울의 과거 행적에 관심이 쏠려 있을 때, 바나바는 지금 사울이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하는지를 바라보고 증언해주었습니다. '위로의 아들'이라는 이름처럼 바나바가 사울의 위로자로 대리자로 나서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사울을 대변하는 위로자 바나바를 통해 결국 사울을 받아 주게 되었습니다.

가정예배

요14:16에 성령을 '보혜사'라고 칭하는데, 이 단어가 가지는 뜻이 바로 '위로자, 상담자, 대언자'입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대변하고, 그의 마음을 알아주고, 또 위로해 줄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그가 착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그가 성령충만 했기 때문에 위로자로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시대는 과거의 행적을 꼬치꼬치 캐물어 혹독한 댓가를 치르게 하는 시대입니다. 용서와 위로와 사랑은 힘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위로자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는 자는 위로자가 되어야 합니다. 허물과 연약함을 덮어주고, 다시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무엇보다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세워지길 돕는 성령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사울을 받아들인 초대교회는 점점 더 든든히 세워져 갑니다. 이스라엘 온 땅에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인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수가 점점 많아집니다. 부흥은 이렇게 임하게 됩니다. 우리는 온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바나바와 같이 위로하고, 품어주면 온전하지 못한 우리를 통해 한 영혼이 사는 역사, 슬픔과 낙심에 있던 자가 다시 힘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가정과 교회 안에서 바나바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나누어 보세요.

- 1) 나의 과거를 바나바와 같이 덮어주고, 위로해주고, 대변해주는 사람이 있나요?
- 2) 나는 어느 자리에서 위로자로, 대변자로, 성령 충만한 자로 서야 할까요?

온라인 헌금 안내

농협 355-0074-8968-63

(예금주 : 임마누엘교회)

*송금시 '이름+헌금종류' 기재

예시) 십 일 조-김바울십 / 감사헌금-김바울감
 주일헌금-김바울주 / 선교헌금-김바울선
 일천번제-김바울일 / 건축헌금-김바울건